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 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6년 1월 4일(일) 제1571호

이찬양 선교사와 마케니지역 라마나욧 학교 리더십들.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1월 3~4일, 10~11일 '2026 선교헌금 작정' 선교헌금작정서,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전화 참여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시작된다. '2026 선교헌금 작정'을 1월 3~4일과 10~11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예배에서 한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더보기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선교헌금 작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자동이체(CMS)'나 '봉투'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개인정보, 금액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도 반드시 해야 한다. 선교헌금 증액 및 해지는 전화(02-3215-3616)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선교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이체 날짜는 매월 25일이다. 봉투로 선교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은 '선교헌금작정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온누리교회는 선교헌금 119억 원(11,934,019,785원)을 선교사 후원(62%), 선교사역비(15.5%), 시설운영비(9.6%), 기관 지원(8.9%), 행정운영비(4.1%) 등에 사용했다.

'2026 선교헌금'은 선교사 후원(60%), 선교사역비(16%), 기관 지원(9%), 시설운영비(9%), 행정운영비(5%)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목회서신에서 "선교는 교회의 심장"이라면서 "새해에도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 명령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나아가자"고 권면했다〈관련기사 4면〉.

한편 2026 선교사 간증집 〈눈물이 기쁨 되어〉가 출간됐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19유닛의 간증이 담겨있다. 1월 4일과 11일 일요주일 예배 이후 성도들에게 배포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02-3215-361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 '나를 따르라'

1월 5~17일 매주 월~토 오전 5시 30분 각 캠퍼스 본당

2026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1월 5일(월)부터 17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에서는 실시간 중계를 한다. 토요일에는 전세대가 함께 예배드린다.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 첫째 주에는 1월 5일(월) 이재훈 위임목사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눅 2:49), 6일(화) 도육환 목사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눅 7:24), 7일(수) 유현목 목사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막 10:35~40), 8일(목) 김승수 목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 16:21~28), 9일(금) 김승훈 목사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눅 8:22~25), 10일(토) 노희태 목사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마 6: 25~34)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새해에도 '공동체성경읽기'

유튜브 채널, 2부 새벽기도회, 공동체성경읽기 모임

새해에도 '공동체성경읽기'를 한다. 공동체성경읽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와 공동체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매일 자정 유튜브 '365 성경읽기' 채널에 업로드되는 '절기별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2월부터는 공동체성경읽기 앱을 통해 제공). 하루 15~17분 분량이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때는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공동체 총무나 순장, 정해진 사역자가 매일 자정에 업로드되는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면 된다. 성경읽기 진도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책갈피형 성경읽기 진도표는 1월 한 달간 온누리교회 안내데스크 및 헌금함 위에 비치 될 예정이다.

둘째,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선교관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셋째, '공동체성경읽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은 추후 공지한다. 문의: 02-3215-3239

/ 박지혜 기자

청년부 리더십 콘퍼런스, 대학부 연합 콘퍼런스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는 '겨울 아웃리치'

대학청년부 '청년부 리더십 콘퍼런스', '대학부 연합 콘퍼런스', '겨울 아웃리치'가 이어진다.

2026 청년부 리더십 콘퍼런스는 1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영산수련원(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391번길 42)에서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진행된다. 대학부 연합 콘퍼런스는 1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소망수양관(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길 122-83)에서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이어진다.

대학청년부 겨울 아웃리치는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진다. 일본, 대만, 베트남 등지에서 노방전도, 부흥집회, 현지 청년 집회, K-문화 사역 등을 할 예정이다.

기독교 세계관_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3면 | 선교_ 이재훈 위임목사 목회서신 4면 | 오피니언_ 신앙에세이 6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평범함 속의 비범함

고린도전서 10:31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비범한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고전 10:31).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일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은 거룩함에는 예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와 세상, 주일과 평일을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순간은 어느 한 순간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 자유대학교를 설립할 때 개교 연설이 명문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인치도 없다."

과학과 예술, 정치와 비즈니스, 교육과 가정,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친구를 만나는 사소한 만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함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평범한 일상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질 때 가능합니다. 17세기 시인이자 목사였던 조지 허버트의 한 찬송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범사에 주와 더불어 하면 천한 일이란 없습니다. '주를 위해' 그 한 마디에 모두 밝고 깨끗해집니다."

'범사에 주와 더불어 하면 천한 일은 없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떤 영역, 어떤 일이건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임을 의식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의 제단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영적 허영심' 입니다. 영적 허영심이란 큰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은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오만입니다. 모든 삶의 가장 사소해 보이는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것은 평범한 행위지만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음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감사하고, 그 음식을 통해 누군가와 화해하고 화목하며, 누군가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비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늘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이라는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과 우리의 연합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 생존을 위한 본능에 머물지 않고 그 힘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동기와 목적을 품을 때 비범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노동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업과 거래를 통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타내고자 일한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지만 세속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적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은 그 모든 행위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비범한 일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그것을 가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세우는 일"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언급하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육류 대부분은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지식이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올바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실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고, 그러므로 그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내가 오염되는 것 아니다. 그 우상의 어떤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 지식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지식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에 근거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시장에서 고기를 자유롭게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어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먹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나에게는 평범하고 당연한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지식에 사랑이 없을 때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자유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곧 덕을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32~33절).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덕을 세운다' 는 헬라어 '오이코도메' 는 '집을 짓는다' 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거대한 집,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 마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건물을 짓는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고전 10:23~24).

이중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덕을 세우는 행동' 이라는 기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고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면 되는데, 왜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그 대답이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건 자유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으로 인해 시험드는 이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31절).

비범함이란 지식으로 남보다 높은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세워주기 위해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침묵하는 인내가 모여서 하나님의 집,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삶입니다.

세기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일상을 읽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 삶의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있다는 하나님 섭리의 관점을 가져야합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비범한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음란물에는 정말 피해자가 없을까?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 보자.

"내가 음란물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건 그냥 피해자가 없는 오락일 뿐이야."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음란물은 거대한 산업이다. 추정치는 연간 60억 달러(약 8.1조 원)에서 150억 달러(약 20.25조 원) 사이다. 음란물이 이렇게 거대한 사업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음란물을 '피해자 없는 오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음란물은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식을 무디게 만든다. 모든 음란물이 신체적 폭력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음란물이든 그렇지 않든, 대다수 음란물은 남성을 권력을 가진 존재이자 지배적인 존재로, 여성을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존재로 묘사한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무엇을 '정상'으로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2016년 한 연구팀이 22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음란물을 더 자주 소비하는 사람일수록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간단히 말해, 음란물은 시청자들이 성폭력을 호의적으로 보도록 조장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폭력이 묘사된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95%가 그 폭력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이 바람직하거나 최소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둘째, 음란물은 항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음란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동 포르노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자주 발견되며, 아동 포르노는 그 정의상 결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다. 포주와 성매매 조직은 종종 음란물을 이용해 소녀들을 성노예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일부 음란물 제작자들은 법정에서 여성들에게 모델 일이 있다고 속여 포르노 산업으로 유인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렇게 유인된 소녀들은 음란물 촬영을 강요받았으며, 그 영상은 개인 수집가에게만 보일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물론 이러한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런데도 음란물 제작자들은 항상 여성들이 '동의했다'라는 서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것은 음란물 제작자들이 여성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속임수 중 하나일 뿐이다. 전직 포르노 배우 알렉산더 리드는 자신이 참여했던 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구타를 당한 적이 없다. 내 허벅지 뒤쪽에는 지금도 영구적인 흉터가 남아 있다. 그것들은 모두 내가 동의한 것들이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전까지는 어떤 잔혹한 일이 나에게 닥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셋째, 음란물은 성매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부 음란물이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다 해도, 이 산업이 존재하는 한 학대는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음란물은 성매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강요와 거짓말이 개입되는 순간, 음란물은 곧 성매매가 된다. 남성들이 소녀들을 강요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로부터 돈을 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매매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음란물은 성매매를 부추기기도 한다. 음란물에 자주 노출될수록, 사람들은 성폭력과 착취의 피해자에 대해 덜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군가가 착취를 오락의 한 형태로 소비하게 되면, 착취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를 배우기 위해 음란물을 시청하도록 강요받는다.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은 더 이상 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음란물은 그것을 직접 보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위험이 된다. 음란물이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장차 성매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음란물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출연하는 여성들, 음란물을 보는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들, 음란물이 일상화된 가정에서 자라는 소녀들까지, 음란물은 가는 곳마다 피해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음란물은 피해자가 없는 오락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음란물은 여성에 대한 폭력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음란물은 남성들이 성적 폭력에 대해 덜 문제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실제로 그것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인다."

"음란물은 항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음란물 산업은 정기적으로 강요와 속임수를 사용하여 여성과 소녀들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로 끌어들인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세계관의 회복

다시 기독교 세계관으로

주성대 장로
(온누리세계관학교 대표장로, 동대문중랑공동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 생각할 시대적 도전이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세계관의 문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소망하지만, 만일 일상의 판단과 선택에서 성경이 아닌 세상 기준에 더 익숙해져 있다면 의도하지 않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간극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오늘 한국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의 중심을 서서히 흐리게 만드는 다양한 세계관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 세계관들은 문화와 학문, 과학기술과 대중 매체에 녹아들어 그 결과 성도들은 부지불식간에 성경이 아닌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

최근 대중문화에서 보이는 흐름 가운데 하나는 '전통문화의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속적(샤머니즘) 세계관이다. 최근 세계적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에서 주술, 퇴마 등의 아이템은 선과 정의의 상징처럼 묘사된다. 예능 프로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주, 운세 등의 내용은 재미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처음에는 흥미로 받아들이지만, 반복돼 노출로 무속 세계관은 긍정적인 정서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6' 조사에 따르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사주나 운세 같은 요소를 접하며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고 한다. 이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자료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 외 다른 기준에 기대는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 안에 섞여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회 이념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간과 역사를 물질 중심으로 이해하는 유물론적 세계관은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을 전제로 하며, 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과 근본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과 세계의 출발점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정의와 평등, 약자 보호와 같은 가치들은 분명히 성경이 강조하는 귀한 덕목들이나, 그것이 어떤 세계관에서 출발하고 어떤 지향점을 갖는지 신앙적 분별이 필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평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실현되는 개념이다. 반면 유물론적 세계관은 이를 하나님과 무관한 체계 속에서 재구성하고 국가와 제도로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성찰과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

또 하나의 강력한 흐름은 과학주의이다. 과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주어진 귀한 선물이다. 그러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은 과학 자체가 아니라 과학주의라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이러한 사고는 신앙을 비합리적인 영역으로 밀어내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이 정보 처리 수단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인간 이해를 약화시킨다.

이 모든 흐름의 바탕에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라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모든 생각과 신념을 동등하게 놓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절대 진리는 시대에 뒤처진 개념으로 취급된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사사기 시대같은 문화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권위는 점점 개인적 선택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은 2022년 송구영신예배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진리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원주의적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는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의 도전은 단일하지 않다. 무속 문화, 유물론적 사고, 과학만능주의,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디지털 문명이 만들어낸 자아 해체적 사고까지 다양한 세계관들이 서로 교차, 작용하고 있다. 이 흐름은 공통으로 주님 주권을 흐리고, 신앙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기독교 세계관의 회복'이다. 신앙고백과 삶의 판단이 분리된 이중구조는 현대 교회의 가장 깊은 문제다. 신앙의 틀이 성경에서 세속으로 조용히 이동하는 순간, 신앙의 위기는 이미 시작된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태도다. 창조-타락-구속-회복이라는 성경의 대서사시 속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 힘을 얻는다. 기독교 세계관은 책에서 배우는 이론이 아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며, 매일의 선택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으로 돌아가 분별하는 믿음 위에 기독교 세계관을 차분히 다시 세워야 할 때다.

이재훈 위임목사 목회서신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누리교회는 해마다 새해의 첫 문을 여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을 ‘선교헌신주일’로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새해의 시작을 다른 무엇보다 ‘선교’와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정을 따르는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첫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임과 동시에,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임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가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촉매(catalyst)’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의 네 가지 기둥은 예배, 공동체, 제자도(양육), 그리고 선교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본질이며,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자극합니다. 그중에서도 선교가 다른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열매 맺으며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한 다음 선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내부 지향적으로 변할수록 교회의 영적 활력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반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며 거룩한 모험의 길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공동체의 교제가 더욱 끈끈해지고, 예배는 뜨거워지며, 제자도에도 비로소 생명력이 샘솟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아웃리치’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매년 국내외로 1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모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그곳에서 오히려 공동체가 살아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양육이 활성화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故 하용조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2천 명 선교사 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교회가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달려왔기에 온누리교회의 모든 영역이 활성화되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8년, 꿈만 같았던 2,000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TIM, CGN, NGO 더멋진세상, 한동대학교, BEE, 이주민 사역 등 온누리교회가 펼치고 있는 수많은 사역 또한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모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생존’ 자체가 교회의 최고 목표가 될 때 교회는 길을 잃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온누리교회를 뛰게 하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듯, 선교가 심장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교회는 두 가지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영적 위축증’과 ‘영적 비만증’입니다. 위축증은 장기나 조직이 정상보다 작아지고 약해지는 현상이며, 비만증은 체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질병 모두 심장 기능이 약화 되어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복음의 혈액을 공급하는 선교가 막히면 교회의 활동량이 급감하고, 내부에만 에너지가 쌓여 비대해지며 결국 활력을 잃고 병들게 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Emil Brunner)는 “불은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The church exists by mission, just as fire exists by burning)”고 말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소수의 전문가나 선교사만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 전체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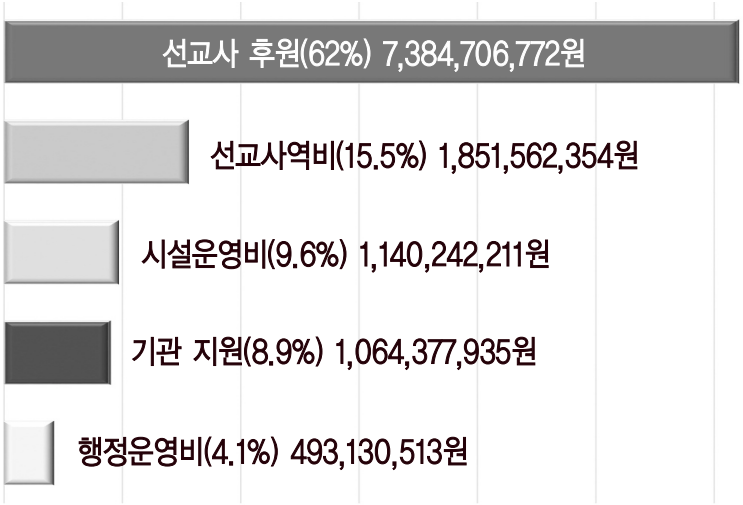
저는 어느 인터뷰에서 온누리교회 40년 역사를 회고하며, “선교의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광야 40년의 역사”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온누리교회를 계속 타오르게 하는 힘은 ‘주님이 맡기신 선교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이재훈 위임목사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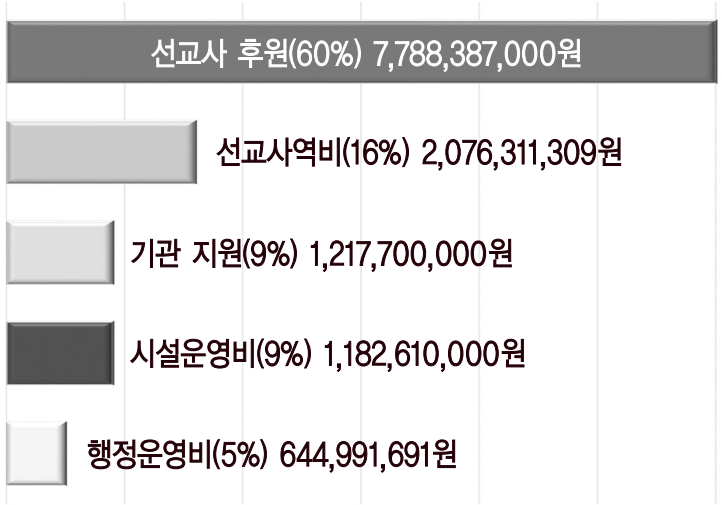
선교헌금 사용 내용 보고 및 계획

2025년 선교헌금 지출 내역



지난해 온누리교회는 선교에 약 119억 원(11,934,019,785원)을 지출했다. 성도들이 봉헌한 선교헌금을 선교사 후원(62%), 선교사역비(15.5%), 시설운영비(9.6%), 기관 지원(8.9%), 행정운영비(4.1) 등에 사용했다.

2026년 선교헌금 사용 내역(예상)



새해 온누리교회 선교에는 약 129억 원 규모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해 선교헌금은 2000선교본부, TIM(두란노국제선교회), Acts29 비전빌리지, 온누리M미션, NGO 더멋진세상 등이 앞장서 열방에 생명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예정이다.

"나를 따르라!"

온누리교회 및 14개 협력기관 시무예배

2026 온누리교회 및 14개 협력기관 시무예배를 1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간사, 14개 협력기관(경배와찬양, 두란노아버지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 에젤선교회, CGN, 두란노서원, Acts29 비전빌리지, 두란노국제선교회,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M센터, NGO 메디엑세스, 행가래, 선교재단) 임직원 등 950여 명이 참석했다.

2026 시무예배에서는 신임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 대표기도, 온누리교회 및 14개 협력기관 소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문기 장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2026 온누리교회 및 14개 협력기관 시무예배.

이재훈 위임목사는 '나를 따르라'(마 16:24)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온누리교회 및 14개 협력기관 임직원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민하은 간사(온누리복지재단)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5 사르밧 프로젝트,

쌀 3,757포와 성경책 103,097권 전달

사회선교본부가 주관한 '2025 사르밧 프로젝트'에서 헌금 2억5천여만 원(255,104,621원)을 봉헌했다. 이 헌금으로 국내 개인 및 기관에 백미 3,757포를 지원했고, 국내외 단체에 성경책 총 103,097권을 전달했다. 지난 12월 31일(수) 오전 1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는 '사르밧 프로젝트 케냐 성경 후원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사회선교본부는 전 세계 학교와 고아원에 성경책을 보급하는 사역단체 '원바디'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케냐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성경 교과서 1만 권을 제작 및 보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쌀'과 영의 양식인 '성경'을 함께 나누며 배고픔과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채워주는 사역이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우리가 몰랐던 '노아 방주' 이야기

CGN '방주타GO!' 1월 9일 공개

CGN 신규 콘텐츠 '방주타GO!'를 1월 9일(금) 공개한다.

'방주타GO!'는 이재만 선교사(창조과학선교회)와 함께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Ark Encounter'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주 안에서 수천 마리의 동물들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노아의 방주는 과연 역사적 사실인지 등 성경적 의문을 풀어간다. 우리가 몰랐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알아가면서 방주에 담긴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방주타GO!'는 1월 9일(금) 기독 OTT '퐁당' 자정, CGN TV 오전 10시 20분, CG N 유튜브 채널 오후 5시에 시청할 수 있다. 총 4부작이다.

서빙고 권사성가대원 모집

서빙고 권사성가대원을 모집한다. 70세 이하 온누리교회 권사가 대상이다. 합창단이나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 전공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성가대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에서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권사는 1월 31일(토)까지 전화(총무: 010-2070-7622, 팀장: 010-4616-1491)로 접수하면 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80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장소 추후 공지). 신청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는 1주 차 '아버지의 영향력', 2주 차 '아버지의 남성'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39기 참가자도 모집한다. 1월 6일(화)부터 15일(목)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월 5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이다.

/ 박지혜 기자

1월 화요성령집회 'FOLLOW ME'

매주 화 오후 7시30분 서빙고 본당

새해에도 '화요성령집회'는 계속된다. 1월 화요성령집회 주제는 'FOLLOW ME'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할 수 있다.

1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6일 최성민 목사 '익숙함을 버리고, 응답하라'(막 1:16~20), 13일 이서진 목사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아가라'(왕상 19:9~18), 20일 최성민 목사 '완고함을 꺾고, 돌이키라'(행 9:1~19), 27일 최대흥 목사 '계산을 멈추고, 본받으라'(요 13:1~15)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누리 아트비전 '크리스마스 선물전' 성료

전시 수익금 50% NGO 더멋진세상 후원

온누리 아트비전 '크리스마스 선물전'이 성료됐다. 온누리 아트비전은 지난달 10일(수)부터 1월 4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전'을 개최했다. 전시 판매 수익금 50%를 NGO 더멋진세상에 후원금으로 전달한다. 후원금은 회복지원 활동,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 될 예정이다.

김광동 대표(NGO 더멋진세상)는 "온누리 아트비전 크리스마스 선물전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어떻게 소외된 이웃을 향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뜻깊은 행사"라면서 "앞으로도 온누리 아트비전과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1월 10일까지 전화 접수, 1월 31일 오디션

장로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65세 미만 온누리교회 장로가 대상이다. 합창단이나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 전공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장로합창단 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는 2026년 1월 10일(토)까지 전화(010-5264-1191)로 접수하면 된다. 오디션은 1월 31일(토) 오전 1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실시한다.

문의: 010-5264-1191

/ 홍하영 기자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온누리교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1월 6일까지 온라인, 목회행정실, 재정국 신청

온누리교회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정책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기부자에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혜택이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은 1월 6일까지 신청해야 1월 9일 국세청 신고 및 1월 13일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등록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개인정보 등록 및 관리는 정보위탁 업체 '휴먼소프트웨어'의 'MRM 후원자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개인정보 등록하는 과정 중에 표시되는 '1원 약정'은 형식적인 절차이지, 실제로 약정되지 않는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초에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금영수증이 자동등록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이 어려운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과 서빙고온누리교회 재정국을 방문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도움을 준다.

문의: 02-3215-3265

/ 홍하영 기자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립니다"

안나중보기도팀, 기도제목 모집

안나중보기도팀이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기다린다. 안나중보기도팀은 성도들이 제출한 기도제목을 놓고 매주 모여 정기적으로 중보기도하는 사역팀이다.

기도가 필요한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질병의 치유, 자녀의 문제, 가정의 회복, 사업의 어려움 등 어떤 기도제목도 좋다. 제출된 기도제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기도요청은 각 캠퍼스에 설치된 중보기도 카드 수거함에 기도제목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는 2층과 3층 계단 벽면, 선교관 1층 엘리베이터 옆, 모세방 앞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현금희 집사(중종로공동체)는 "성도님들의 기도제목을 나의 기도처럼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장로칼럼

더 멋지게 날아보자!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새해, 새 아침이 밝았다. 어둠을 뚫고 동해의 물길을 박차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격과 환희, 전율로 충만했을 것이다. 뜨거운 마음으로 꿈과 희망, 생명과 이상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것이다. 아침에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새롭게 깊어지고 넓어지기로 다짐했을 것이다. 오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산 오늘이 내일을 만들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인생이 짧음을 비탄하면서 머뭇거리거나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유예하는 사람은 현재를 놓친다. 오늘이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를 놓치지 말고,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지점을 산책하다 보면 수많은 잉어 떼가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자 그대로 '대도약(跳躍)'이다. 혼신을 다해 물길을 박차고 솟구치는 물고기들의 모습에서 팽팽한 긴장감과 약동하는 생명 에너지가 전해진다. 사방으로 튀는 물방울과 은빛 물고기들의 비늘이 햇빛에 비쳐 눈이 부신다. 역경을 극복하고 물길을 올라가는 물고기들의 모습이 끝없는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떠올리게 한다. 평범한 물고기는 도저히 오를 수 없지만, 뛰어오르기만 하면 용이 된다는 등용문(登龍門)이 이래서 생겨났을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오늘'이다. 그것은 이 순간만이 스스로 통제하고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현재 주어진 인생을 즐기며 맛있는 것을 먹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먼저다. 어떤 경우라도 사람과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너무 집착하면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묵상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오롯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워런 버핏은 매일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다. 8시간 잠을 자고, 친구들과 어울려 카드게임을 즐긴다. 하루 5시간 독서와 사색을 한다. 버핏이 주는 교훈은 코카콜라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성장기로 돌아가 많이 먹고,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는 게 더 좋다.

인생은 성취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어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더디게 이뤄져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쾌락이 아니라 감동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 시간은 한순간도 정지라는 것이 없다. 쉼 없이 흘러간다.

시작과 끝도 없이 언제나 지금이 출발선이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 건강한 신앙생활, 반듯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영적 체질을 온전함으로 바꿔야 한다. 어떤 문제든 돌파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지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삶의 난관을 용기 있게 돌파해 나가는 도약이 필요한 때다. 그것이 오늘이어야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려면 내가 먼저 희망이 되어야 한다.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하여 더 멋지게 날아보자.

권사칼럼

하나님의 캐스팅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지난 5월, 마리아무릎기도회에 윤학렬 영화감독이 강사로 오셨다. 그날 윤 감독은 "하나님이 이 땅을 로케이션하시고, 우리를 배우로 캐스팅하셨다"라는 영화인만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1900년대 원산과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대한민국에는 부흥의 DNA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에 부흥의 불이 떨어져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에서 과거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과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찾아다니며 '부흥'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 중이라고 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당들을 무형문화재로 만들었던 장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지만, 아직 본인의 전신갑주가 빈약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버겁다며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마리아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절실합니다. 'Revival here! Revival now!' (부흥이여 이곳에! 부흥이여 지금!)"

윤 감독이 지금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를 인도했다. 그 순간 강력한 성령의 불이 나에게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동안 기도보다는 전도 현장에 나가 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는 '기도'라는 강력한 엔진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복음은 나의 열심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깊이 회개하게 하셨다.

부흥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박함과 간절한 사모함으로 부르짖을 때 임하신다. 하나님은 성령님께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아 회개시키고, 부흥의 불을 붙이신다. 그 불은 반드시 확산하고 증가 되어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은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을 다시 깨우라는 사명을 내게 주셨다. 요즘 "나는 이제 나이 들었고, 아픈 데도 너무 많아.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부대껴"라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추억하는 시니어들을 자주 만난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때다.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다만 내게 붙어 있어서 입만 열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나도 어느덧 나이 팔십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면 가슴이 설렌다.

나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천 번을 읽고 또 읽었다.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곳저곳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발을 주신 것에 감격을 느낀다. 무지외반증이 심해 부끄러워했던 내 발이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품고, 내가 가는 곳이 복이 된다고 믿으며 복음을 전한다.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가면 늘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낀다. 불이 임하면 아플 수도 없다. 죽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따르라"며 우리를 캐스팅하신다.

신앙에세이

하나님의 은총

박성훈 전도사
(허브대학부)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면서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데 한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로 'Favor'였다.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처럼, 'Favor' 역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번역한다.

이 단어는 노아와 요셉, 모세와 다니엘 등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에 기록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드린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셨다(마 22:37~39).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다.

〈잠언〉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한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네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네 목에 매고 네 마음 판에 새겨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드리는 이들에게는 더 특별한 사랑과 은총, 곧 'Favor'를 베푸신다. 사자 굴과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신 일, 청년 시절을 노예와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요셉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통로로 사용하신 일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

이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드리는 이들을 통해 구원계획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갈망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유일한 갈망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버거울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영적으로 더욱 각성해야 한다. 눈앞의 상황이 바다처럼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께 믿음을 드리면 된다.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싸우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시간도, 경제적 여유도, 건강도, 감정적인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런데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청년들이 회복되는 것을 봐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며, 청년의 때에 맞닥뜨리는 모든 싸움을 이기는 영적 돌파구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드리는 자리를 만들 것이고, 그 자리로 그들을 초대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AMA 협력교회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01821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 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노규석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광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 현 김현실 김홍주 노치형
렴문흥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행삼 백성우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대종 신원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목 윤마리아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이형목 이호준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장지훈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회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주하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형훈 한화수 한충희
해롤드김 허원희 황문규 황유일

◈전도사(전임)
길한솔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안대진 유석현 유현우 이예찬
임동현 장건우 최강호 홍근영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이기훈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컬 서영철 싱루아마눕
양현수 유알렉세이 예리 마이클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헌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임진숙
정진모 제인량 최선재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명주 고우리 구길모
권영찬 권예람 권평화 권혁성
김가희 김기태 김명초 김민수
김민희 김빛나 김소망 김승희
김신영 김영범 김영옥 김예찬
김유미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성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홍미 김화목 나가노 마사토
남 혜 네우빠네 피터 드미트리
문수진 미즈바울 박 권 박미애
박 성 박성훈 박시온 박유진
박의력 박종필 박찬미 방예린
방진아 배성진 배윤주 삼손 멜로디
서은규 서혜진 손위결 송영호
송찬욱 신나래 신지수 신호철
아마트 자라갈 안류택 염경덕 오성광
오성민 오예원 오진우 오혜광
옥준우 우수진 우승희 유요한
유지은 유 찬 윤길문 윤지현
이건준 이나단 이미진 이민규
이선민 이선혜 이소라 이승은
이승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준영 이지영 이택민
임경미 임노완 장성열 장영주
전미연 전준호 정경일 정기은
정상원 정승혁 정연영 정영현
정주은 정찬중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영찬 조운식 조준기
조준우 조혜원 지석구 지수정
주승환 차선일 최성진 최 은
최혜정 하예림 한숙희 허영은
홍세나 황서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오습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두진
김명세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병옥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역 김수웅 김영수 김용기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준규 김준용 김준홍
김지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나상권 나영옥 남상길 노기홍
노재한 류기범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두원 박명률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일구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형민 박흥균 배기영 배 문
배병태 백남인 백승웅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성현 서진봉
서찬교 성주명 성창섭 손정래
손한기 송기선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종환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학철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태환 양유식 양재수
양춘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기 이상덕 이상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길
이종순 이장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헌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임현태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전한백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상기 정순풍
정영규 정영열 정용화 정운오
정재탁 정재현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성현A 조성현B 조진호 조청구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한공식 함선호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석훈 강은철 강종도 강찬옥
강창재 강태욱 고길범 고영대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태일
곽희준 구경용 구자엽 국중대
권순형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섭 김동수 김동우 김동원
김동준 김동환 김만순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집 김상철 김선귀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생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의래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완 김종호 김지학
김지현 김진현 김창석 김창원
김철민 김태형 김해기 김현주
김형석 김형준 김화선 김효구
김희식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남명현 남윤영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경한 노전기 노지준
노하수 라상원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건용
박구병 박균명 박기일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명균 박명신
박복응 박성규 박승병 박언용
박영한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태성 박태식
박태준 박해한 박 현 박현규
박효신 박흥선 방찬종 배승호
배창준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성광제 손기철
손기태 손태용 송동섭 송영봉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헌승 신현식 신현일 심길섭
심천보 심효무 심희돈 안상헌
안연환 양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충식 양현열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세현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우승엽 우시정
원종호 유봉국 유우선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동욱 이봉걸 이삼형 이상율
이상준A 이상준B 이상혁 이석일
이성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지형 이재광 이재욱 이재춘
이정구 이종우A 이종우B 이종철
이주호 이진택 이찬주 이풍우
이태열 이학일 이해달 이홍선
임창우 임 훈 임상범 임정열
임재남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관수 장광열 장문석
장성수 장승훈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진국 정광열 정기삼
정명호 정민호 정석순 정연식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용주 정운섭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재환 정제범
정찬희 정탁영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병현 조성수 조성환
주성대 주영장 주재량 지상목
진종구 차춘근 최민철 최병선
최봉림 최석민 최성완 최용일
최이정 최종필 최주관 최준영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갑전
하상진 하주헌 하태승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상천 한승만
한영우 한왕석 한필규 허 경
허대행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승우 홍호식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전영한 정광택 정남식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정명준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한증재 허 민 홍동욱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라제드브락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 찬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문봉주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재정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례 김상훈
김성근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장인 김정운 김진우
김창식 김향선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미은
박종훈 박찬미 한상천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송진선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안성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노우에 마키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주영
이정주 이청원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천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한증재 허 민 홍동욱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강진영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백만기 서영찬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오지혜
이다니엘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실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진혜선
최윤호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하청훈 한현희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Le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Leo Wang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경선
김수광 김수호 김 완 김현중
남 영 노흥규 백남인 백호현
서인택 신중수 송창도 안종인
우광방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문호 이용하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고다이라 김승집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노유철 박호택
성현제 송태민 신솔문 심상일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상헌
이수성 이승구 이은창 이준상
손정래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최경주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Christine Kwon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승호 최태영

광고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rn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6년 1월 28일(수) ~2월 5일(목)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 (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청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유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앱의 헌금 메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여 사용하세요.
헌금온라인 안내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25/12/24(수) 이수 김택성 집사 모친상 고 배복례
25/12/25(목) 찬양사역 안호진 성도 모친상, 이현경 성도 시모상 고 남은순
25/12/25(목) 북누리 신섭 장로 모친상, 김계숙 권사 시모상 고 김순화
25/12/26(금) 성북 이승희 성도 부군상 고 김상진
25/12/26(금) 송파B공동체 박수진 권사 모친상 고 홍을희
25/12/27(토) 마포 안세훈 집사 부친상 고 안병소
25/12/28(일) 동작 김현채 성도, 김영희 권사 자녀상 고 변하현
25/12/29(월) 서초B공동체 고영미 성도 부군상 고 김용조
25/12/30(화) 양재A공동체 김철민 장로 부친상 고 김필상
25/12/30(화) OCC 이은경 집사 모친상 고 고증자
25/12/31(수) 경기A공동체 심현봉 집사 모친상 고 윤정임
25/12/31(수) OCC 이철 장로 부친상, 이혜원 권사 시부상 고 이윤
25/12/31(수) 중종로 이희영 권사 부친상, 정문규 장로 빙부상 고 이윤
25/12/31(수) 중종로 이우형 성도 부친상, 김세경 권사 시부상 고 이윤
1/1(목) 강촌 백애신 성도 시모상 고 고선화
1/2(금) 영등포구로 강선중 성도 모친상 고 김영숙
1/2(금) 성북 예민수 집사 모친상, 최진선 권사 시모상 고 손춘현

온누리교회 ONNURI CHURCH

온누리 새해는 선교와 함께

2026년 1월 3-4일, 10-11일 선교헌금 작정

선교헌금 작정 방법

1. 현장 작정(2026년 1월 3~4일, 10~11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정서 작성
2. 온라인 작정(상시 작정 가능) : 선교헌금작정 QR코드
3. 전화 작정(상시 작정 가능) :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작정 | 2025 선교 보고

02)3215-3616 선교헌금 문의

선교헌금 작정서 작정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CMS)
   ①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② 처음 작정하시는 분은〈신규 작정란〉 작성
   ③ 이미 작정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변경 작정란〉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표시
2. 헌금봉투 방식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 작성
   ② 헌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